

# 일탈 꿈꾸는 직장인 '나도 배우다'

‘직장인극단 DL’ 창단 16년째  
15명 단원, 공무원·교사 등 직업 다양  
‘굿닥터’·‘한 여름 밤의 꿈’ 등 무대  
“또 다른 자아 발견... 커튼콜 짜릿”  
내달 9일까지 단원 모집·희곡 읽기도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씨우어겐' 무대 장면.

〈직장인 극단 DL 제곡〉

집과 직장을 오가는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드라마틱한 변화를 꿈꾼다. 사무실 책상에 앉은 내가 아닌 무대 위에 선 배우의 모습을 가만 떠올려 본다. 직장인극단 DL에서는 이따금 상상이 현실이 된다. 2007년 창단한 이들은 2008년 1월 첫 공연을 선보였다. 극단의 이름인 DL은 Dramatic Life의 줄임말이다.

극단은 '굿닥터'를 시작으로 '낙산', '한 여름 밤의 꿈' 등 19편의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지난해 11월 26일에는 대학로에서 인기를 끌었던 '씨우어겐'을 선보였다. 포장마차를 배경으로 손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놓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해 얘기한다.

현재 극단에는 15명의 단원이 함께하고 있다. 각자의 삶을 살던 이들이 한데 모인만큼 병원장부터 교도관, 공무원, 교사까지 직업도 다양하다. 극단 활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극단은 '연기 경험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잘 생기지 않아도, 직장인이 아니어도'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배우뿐만 아니라 무대와 의상을 담당하는 미술팀, 음향팀, 조명팀, 극작팀, 기획팀 등 원하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극단은 함께할 단원을 2월 9일까지 모집한다. 단원이 구성되는대로 6월 정기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무대를 위한 연극 준비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진행된다. 공연 두 달 전에는 주 2회, 한달 전에는 주 3회 연습에 돌입한다. 공연을 2주 앞두고는 매일같이 연습할 만큼 무대에 '진심'이다. 연습에서는 기존 단원이 연기 선생님으로 나서 신입 단원들에게 발생과 감정표현, 무대 동작 등에 대해 지도한다. 이에 더해 지역 극단에서 활동하는 이를 연출가로 섭외 해 무대의 완성도를 높인다.

일체 후원 없이 진행되는 만큼 공연시 20만 원의 별도 회비가 필요하다. 이는 대관비와 무대 제작비 등으로 사용된다. 1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극단의 시간이 그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10여년 즈음 지났을 때는 쇠퇴의 시기가 찾아왔다. 당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던 인터넷 카페는 회원들의 뜸한 방문으로 활기를 잃었고 단원 모집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코로나까지 가세하며 극단은 휘청이는 듯 했다.

자칫 해체될 수 있었지만 지난해 극단은 카페 사이트를 바깥 회원을 새로 모집했다. 400여명에서 42명으로 회원 수는 줄어들었지만 안정감을 찾았다. 그렇게 이들은 현재 매주 연습에 돌입하며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또 희곡을 읽고 감상평을 공유하는 '희곡 읽기 소모임'도 진행하고 있다. 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극단 연습실에서 열린다.

단원 8년차인 배광희 두암한방병원장은 "사회에서는 혼날 일이 많지 않은데 공연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혼난다.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며 웃어보였다. 이어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강패가 되기도 하고, 작품 속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아가는 재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인식 단장은 "작품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만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다. 서로 부딪히며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모난 성격이 깎이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극 중 맡은 역할을 통해 발견하는 내 안의 또 다른 자아는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한다. 직장인의 삶에서 극단 단원이라는 부캐의 삶을 살고, 이에 더해 연극에 참여하며 극중 인물의 삶을 살아가는 재미는 연극이 주는 에너지라고 성 단장은 강조했다.

“무대의 막이 내리는 커튼콜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에 서있을 때면 한번의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메달을 땀을 흘릴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주어진 저녁 시간을 연극이라는 건전한 취미활동으로 채울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타이타닉’ 25년 만에 재개봉



다음달 초 개봉... 3D 관람도 가능

‘아바타: 물의 길’로 흥행몰이 중인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대표작 ‘타이타닉’ (1997·사진)이 개봉 25주년을 기념해 재개봉한다. 배급사 월트디즈니 코리아는 영화 ‘타이타닉: 25주년’ 이 내달 초 관객과 만난다고 11일 밝혔다.

이 작품은 4K HDR (High Dynamic Range·영상의 명암 강조해 밝기의 범위를 확장하는 기술)로 리마스터링 돼 더 선명한 화질로 감상할 수 있고, 3D 포맷으로도 상영된다.

1912년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화가 잭(리어나도 디캐프리오 분)과 약혼자와 함께 1등실에 승선한 로즈(케이트 윈슬렛)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개봉 당시 전 세계에서 18억4347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글로벌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으며, 이듬해에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감독상 등 11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연합뉴스

##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감면 추진

조계종 총무원장 “전면폐지 목표”

대한불교조계종이 국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찰 방문객들에게 받는 ‘관람료’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11일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우스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문화재 관람료 감면 관련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관리 비용을 사찰이 관람료 징수로 충당해 온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연구 용역이나 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진우스님은 정부 예산이 한정된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관해 “전면적인 폐지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올해 5월 4일 시행되며 이를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연합뉴스

## 네명의 아이들 ‘진짜 보물’ 찾기

광주 출신 이미레 동화작가 장편동화 ‘바다를 담은 그릇’ 펴내

“이야기를 쓰는 동안 내내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생각했어요. 상감청자가 비색과 정교한 무늬라하면 백자는 눈처럼 흰 빛깔일 거예요. 분청사기는 마음대로 표현한 무늬, 자기다움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나아가는.”

광주출신 이미레 동화작가 장편동화 ‘바다를 담은 그릇’ (리틀 씨엔북)을 펴냈다.

우리나라에는 시대별로 귀한 도자기와 그릇이 있었다. 고려시대엔 상감청자, 조선시대엔 백자가 있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 청자와 백자 사이에 분청사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번 작품은 조선시대 널리 쓰였던 분청사기를 모티브로

한다. 분청사기는 상감청자 기법을 계승해 회청색의 태도 위에 분장한 자기를 말한다. 광주 충효동과 고흥 두원면 등지에서 많이 생산되는 도자기다.

이번 동화의 배경은 남해안의 작은 갯마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군량을 모았던 득량도가 바라다보이는 곳이다. 분청사기 도요지가 있는 이곳에선 가끔씩 분청사기 깨진 조각들이 발견된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모두 네 명이다. 이들은 방향을 맞아 따분한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보물찾기에 나선다. 그 보물은 다름 아닌 분청사기.

아이들은 온전한 그릇을 찾기 위해 산과 들과 갯벌로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진짜 보물의 의미다. 동화의



제목 ‘바다를 담은 그릇’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그러면서도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어린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작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그릇과 다름없다는 진리를 상징한다. 자신의 생각을 담고 자신의 꿈을 세우는 그릇 말이다.

이 작가는 “서로 다른 무늬가 모여 이루는 세상은 아름다울 거예요”라며 “여러분은 이 그릇에 어떤 무늬를 새기고 싶나요?”라고 묻는다.

한편 초등학교사인 이 작가는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시계수리점의 아기고양이’와 ‘앵앵이와 매암이’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항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